

# 충북 지역경제보고서

2024.6월

본 자료는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2024년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지역 내 업체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분기별 지역경제 상황 파악을 위해 개발한 한국은행 지역경기전망지수를 활용하여 최근의 충북지역 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기술한 것입니다. 이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추후 발표되는 공식 통계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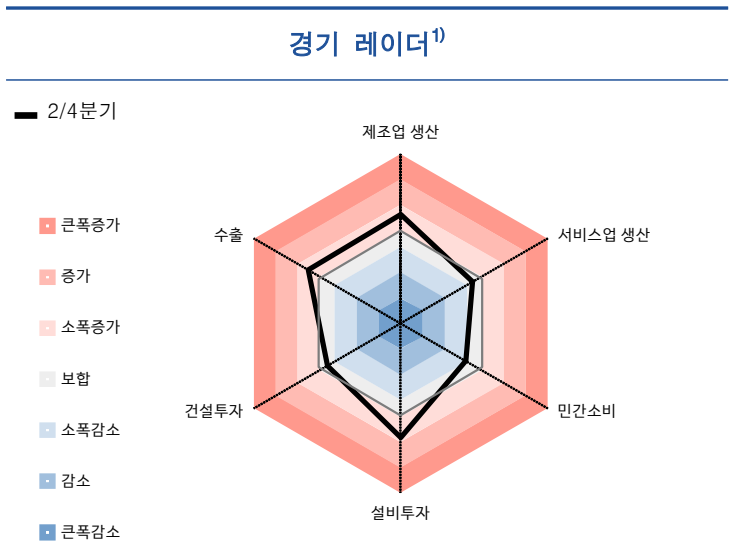
## I. 2024년 2/4분기 충북지역 경제동향

### 개황

#### (충북 경기 소폭 개선)

2024년 2/4분기 중 충북 경기는 1/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동향을 보면 제조업이 소폭 증가하였고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나타내었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과 수출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민간소비는 소폭 감소하였으며 건설투자는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1/4분기보다 확대되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되며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나갔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강보합을 나타내었다.



주: 1) 모니터링 정보를 바탕으로 각 부문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지수화(-5~+5)하여 평한 것임

#### 부문별 경기판단<sup>1)</sup>

종합 판단	생산		수요			
	제조업	서비스업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 소폭 개선	▲ 소폭 증가	◇ 보합	▼ 소폭 감소	▲ 소폭 증가	◇ 보합	▲ 소폭 증가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 ▼, ▼▼는 각각 증가, 소폭 증가, 보합, 소폭 감소, 감소를 나타냄

■ ■ ■ 생산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의약품, 음식료품 등이 증가한 반면 전기장비, 고무·플라스틱 등은 감소하였다. 비금속광물 등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자부품은 AI 수요 확산<sup>1)</sup>에 따른 업황 개선으로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화학제품은 양극재 등 이차전지 소재가 전기차로의 전환 지연<sup>2)</sup>의 영향으로 감소하였으나 화장품이 프리미엄 브랜드 제품<sup>3)</sup>의 대중국 수출 회복으로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부품은 완성차 판매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sup>4)</sup> 의약품은 만성질환 관련 의약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약품이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sup>5)</sup>되면서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료품은 높은 외식 물가<sup>6)</sup>로 집밥 수요가 늘어나면서 식료품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 전기장비는 해외시장에서 경쟁이 심화<sup>7)</sup>되는 가운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재고 조정 및 감산<sup>8)</sup>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고무·플라스틱은 차량 판매 호조에도 불구하고 건설경기 부진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비금속광물은 신규 착공 위축<sup>9)</sup>이 영향을 미치며 보합 수준을 나타내었다.

■ 제조업 생산 소폭 증가

▶ 전자부품 증가

▶ 화학제품 소폭 증가

▶ 자동차부품, 의약품, 음식료품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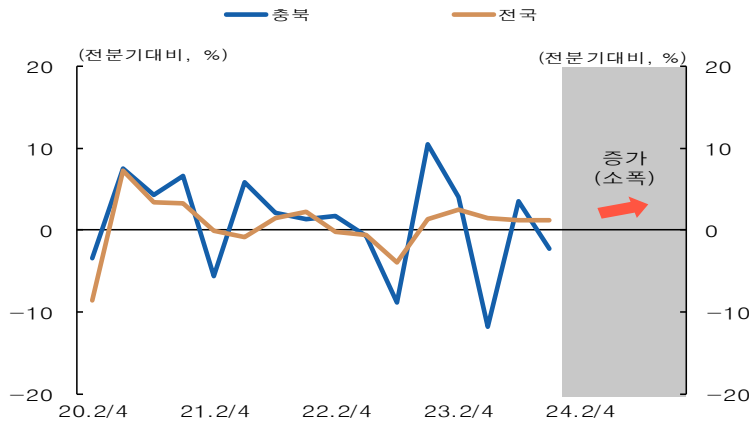
▶ 전기장비 감소

▶ 고무플라스틱 소폭 감소

▶ 비금속광물 보합

1)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주력제품인 낸드 부문도 기업용SSD(eSSD)를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2) 2024년 전기차 판매 성장률 전망치는 27%로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EV Volumes)  
 3) 지역 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주력 브랜드를 13년만에 리뉴얼하고 온라인 공식몰을 도입하며 판매 확대에 나섰다.  
 4) 4~5월 중 국내 자동차 생산량(월평균)은 38.4만대로 전년동기대비 0.5% 증가하였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5) 지역 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개발한 전문의약품(폐암치료제)은 신약 허가(2021년 1월)를 받은 데 이어 올해에는 1차 치료제로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면서 관련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6) 1/4분기 중 충북지역의 외식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3.8%로 가공식품(2.1%)의 약 1.8배 수준이다.  
 7) 올해 1분기 중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전년동기대비 22% 성장했지만 국내 3사 점유율은 전년동기대비 2.8%p 하락한 23.5%를 기록하는 등 중국 업체와의 경쟁이 심화되었다.(SNE리서치)  
 8) 미국의 완성차 업체 포드는 올해 미국 전기차 공장 직원 1,400명을 전환 배치하거나 해고할 예정이며 테슬라도 2024년 1/4분기 중 부진한 인도량을 보이며 향후 인력을 감산할 예정이다.  
 9) 충북지역 건물착공면적은 1/4분기 중 양호한 기상 여건 등 일시적 요인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23.4/4분기: -33.3% → 24.1/4분기: -1.6%, 전년동기대비)되었지만 4월 중에는 전년동기대비 41.2%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 제조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증가율은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업 생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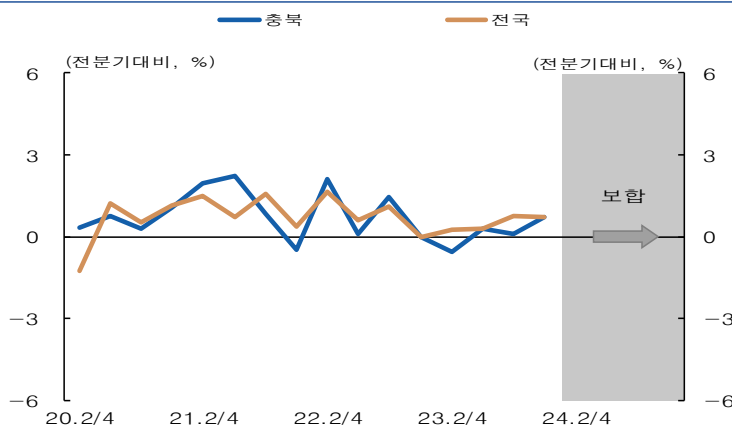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보면 운수업, 도소매업 등은 감소한 반면 숙박·음식점업 등은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전분기 수준을 지속하였다.

운수업은 여행수요<sup>10)</sup>가 전분기와 비슷하나 내수경기 부진에 따른 물동량 회복 지연으로 감소하였다. 도소매업은 백화점업 등에서 소비심리 약화<sup>11)</sup>로 감소하였다. 숙박·음식점업은 지역내 설비투자 확대<sup>12)</sup>에 따른 근로자 유입으로 증가하였다. 부동산업은 주택 및 토지 거래량 증가<sup>13)</sup>와 상업용 부동산 임대 감소<sup>14)</sup>가 엇갈리며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 서비스업 생산 포함

- ▶ 운수업, 도소매업 감소
- ▶ 숙박·음식점업 증가
- ▶ 부동산업 포함

### 서비스업 지역경기전망지수<sup>1)2)</sup>



주: 1) 전분기대비 지표는 계절조정(SA) 계열  
 2)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 등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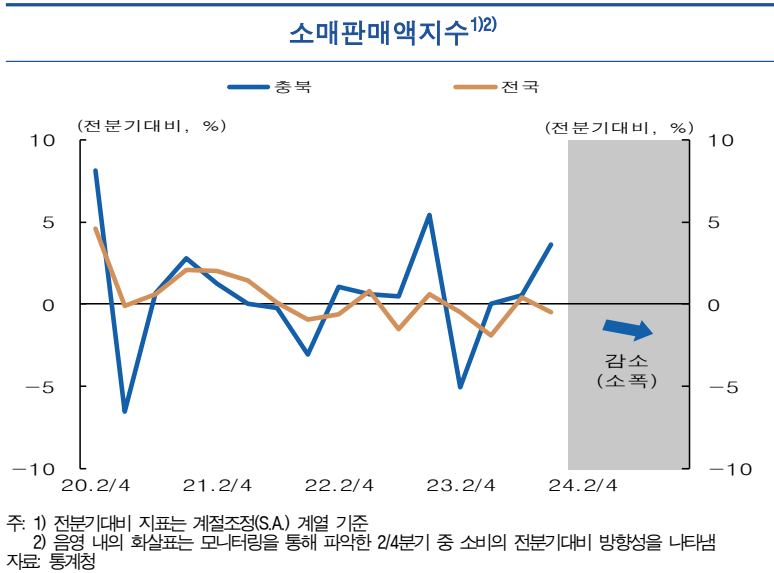
10) 5월 중 청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편수 및 여객수는 각각 2,467편, 39만명으로 1/4분기(2,401편, 38.6만명, 월평균)보다 소폭 증가하였다.(한국공항공사)  
 11) 충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1/4분기 중 102.4(월평균)에서 5월 중 99.9로 하락하였다.  
 12) 지역 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시중단하였던 공장 건설을 4월말부터 재개하였다.  
 13) 충북지역 주택매매거래건수는 1/4분기 중 2,129호(월평균)에서 4월 중 2,324호로 증가하였으며, 토지매매거래건수도 동기간 중 4,895필지(월평균)에서 5,404필지로 증가하였다.(한국부동산원)  
 14) 충북지역 상업용 부동산 중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2023년 2/4분기~2024년 1/4분기 각각 18%, 18.3%, 18.6%, 18.9%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

■ ■ ■ **수요**

**(민간소비 소폭 감소)**

2/4분기 중 민간소비는 1/4분기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재화별로 보면 내구재는 가전제품 및 컴퓨터 등의 판매가 줄어들었으나 자동차<sup>15)</sup>와 가구 등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준내구재는 의류,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을 중심으로 증가한 반면 비내구재는 가격이 급등<sup>16)</sup>한 농산물 등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서비스 소비는 고물가 영향<sup>17)</sup> 지속적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간소비 소폭 감소
- ▶ 재화 소비 포함
- ▶ 서비스 소비 소폭 감소



**(설비투자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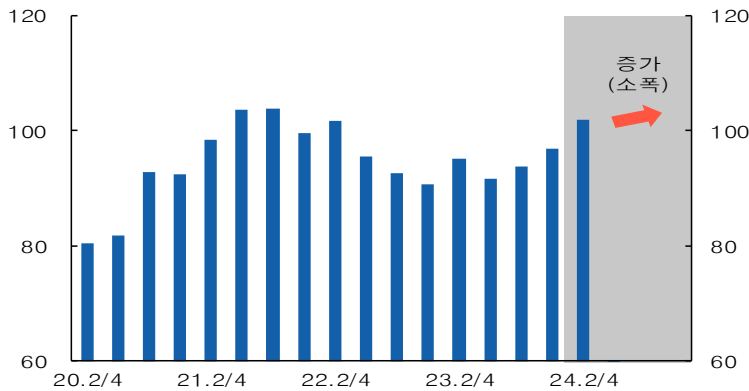
2/4분기 중 설비투자는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이 증가하였고 전기장비,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등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 설비투자 소폭 증가
- ▶ 전자부품 증가
- ▶ 화학제품, 전기장비, 비금속광물 포함

전자부품은 급증하는 AI 반도체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설비투자<sup>18)</sup>가 진행되며 증가하였다. 화학제품은 이차전지 소재 관련 투자<sup>19)</sup>를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흐름이다. 전기장비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차전지 생산시설 신·증설<sup>20)</sup> 및 마더라인 구축<sup>21)</sup>과 관련된 투자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분기 수준을 이어갈 것<sup>22)</sup>으로 파악되었다. 비금속광물은 시멘트를 중심으로 친환경 설비 전환을 위한 투자<sup>23)</sup>가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충북지역 자동차 신규등록대수(월평균)는 1/4분기 4,372대에서 4~5월 중 4,429대로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16) 4~5월 중 충북지역 농산물 가격은 과실(36.9%)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13.9% 상승하였다.  
 17) 충북지역 4~5월 중 개인서비스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2.5%(월평균)를 기록하였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대리운전이용료(23.0%), 세탁료(9.1%) 등이 큰 상승률을 보였다.(통계청)  
 18) 지역 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해 실리콘관통전극(TSV) 관련 설비투자를 진행 중이다.  
 19) 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양극재) 업체는 지난해 6월부터 약 2500억원 규모의 신규 설비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6월 중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 지역 내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2022년 12월 충북 오창에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 신·증설을 위해 2026년까지 4조원을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2/4분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1) 지역 내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2024년 말까지 마더공장(제품 개발과 신공정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험 생산 및 검증을 담당하는 공장) 설립을 위한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착공하여 진행 중이다.  
 22) 지역 내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올해 설비투자를 작년 수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언론보도)  
 23) 지역 내 시멘트 제조업체는 2025년까지 약 1,500억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설비투자실행BSI<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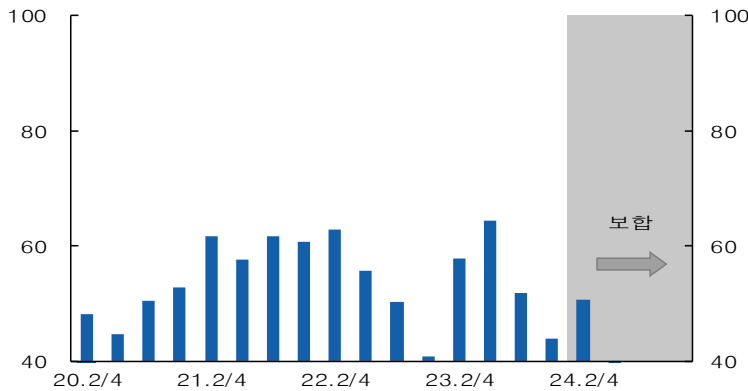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설비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건설투자 포함)

2/4분기 중 건설투자는 1/4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민간부문은 상업용, 공업용<sup>24)</sup> 건물 등의 신규 착공면적<sup>25)</sup>이 전분기보다 늘어나면서 소폭 증가하였다.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의 SOC 관련 예산지출액<sup>26)</sup>이 감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 건설투자 포함

건설업 업황BSI<sup>1)</sup>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건설투자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막대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의 평균  
 자료: 한국은행

24) 지역 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4월 중 반도체 공장의 부속건물인 관리동과 폐수처리동을 짓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5) 4월 중 충북지역 건축착공면적은 1/4분기(월평균) 대비 9% 증가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이 69.3% 감소하였으나 상업용과 공업용은 각각 80.3%, 193.8% 증가하였다.(국토교통부)  
 26) 4~5월 중 충북지역 SOC 관련 예산지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8.2% 감소하였다.(지방재정365)

(수출 소폭 증가)

2/4분기 중 수출(일평균)은 1/4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품목별로 보면 전자부품, 화학제품, 의약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 등은 감소하였다. 자동차부품 등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하였다.

전자부품은 AI 반도체 수요 증가로 수출 물량과 가격<sup>27)</sup>이 모두 개선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sup>28)</sup>하였다. 의약품은 신규 제품 출시 및 해외 수요 확대 등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화학제품은 광물가격 하락이 시차를 두고 판가 하락<sup>29)</sup>으로 반영<sup>30)</sup>되면서 이차전지 소재가 감소하였으나 화장품이 글로벌 수요 증가에 힘입어 확대<sup>31)</sup>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였다. 전기장비는 가격 하락과 전기차 전환 시기 지연 등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자동차부품은 보합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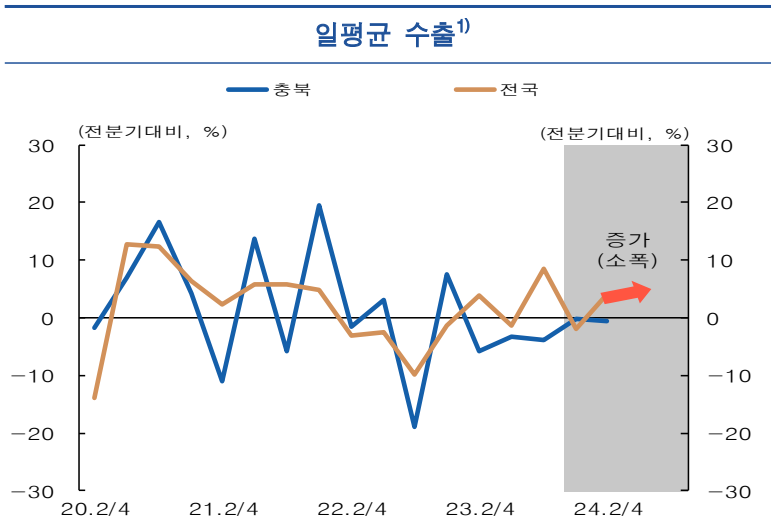
■ 수출 소폭 증가

▶ 전자부품, 의약품 증가

▶ 화학제품 소폭 증가

▶ 전기장비 감소

▶ 자동차부품 보합



주: 1) 음영 내의 화살표는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한 2/4분기 중 수출의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나타내며, 음영 내의 선 그래프는 4월 및 5월 실적치(잠정) 평균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27) 낸드플래시(MLC 128Gb) 가격(고정거래가격 기준)은 올해 5월 말 \$4.9로 지난해 9월 말(\$3.81)에 비해 28.6% 상승하였다.  
 28) 충북지역 반도체 수출금액(일평균)은 4~5월 중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하며 1/4분기(39.3%)의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29) 이차전지 소재의 경우 주요 광물가격 변동이 시차를 두고 가격에 반영된다. 핵심 소재인 리튬가격(RMB/kg)은 2022년 11월 중 최고치(581.5)를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이며 2024년 1월 중(86.5) 기준으로 최고치 대비 85.1% 하락하였다.  
 30) 4~5월 중 양극재 수출단가(kg당, 수출액/수출물량)는 \$26.7으로 전분기(\$30.4) 대비 12.2% 내리며 하락을 지속하였다.  
 31) 지역 내 화장품 제조업체는 중국시장에서 제품 리뉴얼과 온라인 판매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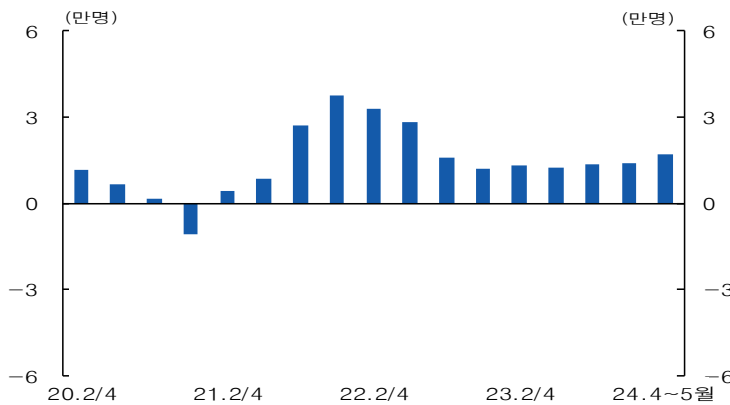
고용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4~5월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기대비 1.7만명 늘어나 1/4분기(+1.4만명, 월평균)보다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증가 전환된 반면 건설업은 증가폭 축소, 제조업은 보합 전환되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비임금 근로자는 증가 전환되었다.

■ 취업자수 증가폭 확대

취업자수 증가<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4~5월 중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2.6% 올라 1/4분기(+3.0%, 월평균)보다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상품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나 공업제품의 상승폭이 확대<sup>32)</sup>되면서 오름세가 유지되었다. 서비스 물가는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가 모두 오름세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 소비자물가 상승폭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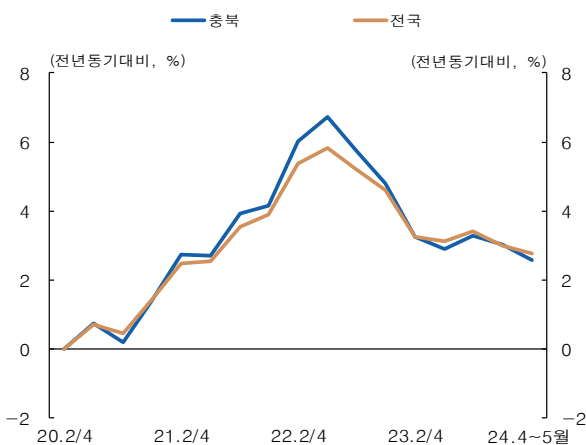
32)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류 가격(전년동기대비, 24.1/4분기 -1.9% → 24.4~5월 2.2%)을 중심으로 공업제품 상승폭이 확대(전년동기대비, 24.1/4분기 1.8% → 24.4~5월 2.2%)되었다.

### (주택매매가격 강보합 전환 및 전세가격 강보합)

4~5월 중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월평균)은 0.01%를 기록하여 1/4분기(-0.04%, 월평균)의 약보합에서 강보합으로 전환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청주(-0.06% → +0.01%), 충주(+0.01% → -0.01%), 제천(-0.04% → +0.05%), 음성(-0.12% → -0.10%) 등 지역마다 주택가격 흐름이 미미한 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주택전세가격은 0.01% 상승하여 1/4분기(+0.08%, 월평균)보다 상승폭이 축소된 강보합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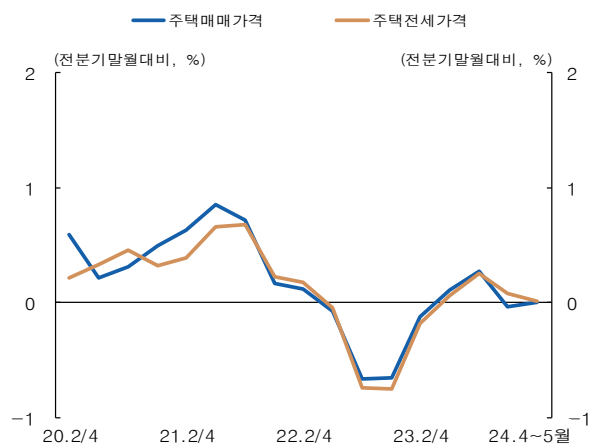
■ 주택매매가격 강보합 전환 및 전세가격 강보합

소비자물가 상승률<sup>1)</sup>



주: 1) 전년동기대비 월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sup>1)2)</sup>



주: 1) 전분기말월대비 월평균 기준  
2) 한국부동산원의 표본재설계에 따라 2021년 7월부터 가격조사일이 월중에서 월말로 변경  
자료: 한국부동산원

## II. 2024년 3/4분기 충북지역 경제전망

### 개황

#### (충북 경기 전망 소폭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충북 경기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 측면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설비투자가 증가하겠으나 건설 투자는 소폭 감소하고 민간소비와 수출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부문별 경기 전망<sup>1)</sup>

총 합 판 단		향후 전망
생 산	제 조 업	▲ 소폭 증가
	서 비 스 업	▲ 소폭 증가
수 요	민 간 소 비	▲ 소폭 증가
	설 비 투 자	▲▲ 증가
	건 설 투 자	▼ 소폭 감소
	수 출	▲ 소폭 증가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 ▼, ▼▼는 각각 증가, 소폭 증가, 보합, 소폭 감소, 감소를 나타냄



■ ■ ■ 생산

**(제조업 생산 전망 소폭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제조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자부품은 반도체가 AI 서버 부문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모바일과 PC 부문<sup>33)</sup>도 개선되며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sup>34)</sup> 의약품은 신제품<sup>35)</sup>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기장비는 신규 제품 출시<sup>36)</sup>에도 전방산업 둔화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제품은 화장품 수요 증가에도 이차전지 소재 부진에 따라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부품, 고무·플라스틱 등도 전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 제조업 전망 소폭 증가
- ▶ 전자부품 증가
- ▶ 의약품 소폭 증가
- ▶ 전기장비 소폭 감소
- ▶ 화학제품, 자동차부품, 고무·플라스틱 포함

**(서비스업 생산 전망 소폭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서비스업 생산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수업은 항공 여객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요가 이어지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물가 오름세 둔화, 내수경기 부진 완화 및 지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에 따른 참여인원 확대 등으로 전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은 건설공사비 상승<sup>37)</sup>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으나 매수심리 회복<sup>38)</sup>에 힘입어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서비스업 전망 소폭 증가
- ▶ 운수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소폭 증가
- ▶ 부동산업 포함

주요 업종별 생산 전망 모니터링 결과<sup>1)</sup>

업종		주요 변동 요인	전망
제조업 (▲)	전자부품	AI 시장 성장	▲▲
	의약품	신제품 중심 판매 증가	▲
	전기장비	전방산업 둔화	▼
	화학제품	화장품 수요 증가(+), 이차전지 소재 부진(-)	◇
서비스업 (▲)	운수	항공 여객 수요 지속	▲
	도소매	지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참여인원 확대, 물가	▲
	숙박·음식	오름세 완화	▲
	부동산	부동산 매수심리 회복(+), 건설공사비 상승(-)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 ▼, ▼▼는 각각 증가, 소폭 증가, 포함, 소폭 감소, 감소를 나타냄

33)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가 도입되면서 모바일과 PC의 교체 수요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34) AI 기술의 무게 중심이 학습에서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신규 AI 서버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클라우드 서버의 교체 수요도 확대되며 낸드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35) 동 의약품은 글로벌 제약사와 협약을 맺고 美 FDA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8월 중 승인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36) 지역 내 이차전지 제조업체는 올해 3분기부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4680시리즈)를 생산할 예정이다.  
 37) 건설공사비지수(월평균)는 2022년말, 2023년말, 2024년 3월 각각 148.6, 153.2, 154.9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38) 충북지역 주택가격전망지수(월평균)는 1/4분기 중 99.3에서 4~5월 중 103.5로 상승하였다.

■ ■ ■ **수요**

**(민간소비 전망 소폭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민간소비는 2/4분기보다 소폭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오름세가 둔화<sup>39)</sup>되는 가운데 충북지역의 실물경기 회복 등에 따른 가계 소득 개선으로 2/4분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민간소비 전망 소폭 증가

**(설비투자 전망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설비투자는 2/4분기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전자부품은 급증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첨단공정 투자<sup>40)</sup>가 확대되며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장비는 전기차 전환 시기 이연 우려에도 향후 시장 선점을 위한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제품과 비금속광물은 투자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설비투자 전망 증가

**(건설투자 전망 소폭 감소)**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건설투자는 2/4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및 공공부문 건설수주액<sup>41)</sup>이 줄어들었으며 건축허가면적<sup>42)</sup>도 주거용, 상업용을 중심으로 감소하였다.

■ 건설투자 전망 소폭 감소

수요(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전망 모니터링 결과<sup>1)</sup>

구분	주요 변동 요인	전망
민간소비	물가 오름세 둔화, 실물경기 회복	▲
설비투자	첨단공정 설비투자 확대	▲▲
건설투자	건설수주액과 건축허가면적 감소	▼

주 : 1)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 ▼, ▼▼는 각각 증가, 소폭 증가, 보합, 소폭 감소, 감소를 나타냄

39) 충북지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전년동월대비)은 2~5월 각각 3.2%, 3.0%, 2.7%, 2.5%로 오름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통계청)  
 40) 지역 내 반도체 제조업체는 2022년 10월 중 낸드플래시 공장 건설 공사에 돌입하였으나 지난해 4월 반도체 업황 악화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러나 올해 4월 중 이를 HBM 공장으로 변경하고 총 20조원을 투자하는 등 일시 중단된 투자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41) 4월 중 충북지역 건설수주액은 849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6.2% 감소, 1/4분기(월평균) 대비 56.7%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42) 4월 중 충북지역 건축허가면적은 1/4분기(월평균) 대비 4.4% 감소하였다. 용도별로 보면 공업용은 24.8% 증가하였으나 주거용, 상업용이 각각 11.7%, 41.8% 감소하였다.(국토교통부)

■ ■ ■ 수요

(수출 전망 소폭 증가)

모니터링 결과 3/4분기 중 수출은 2/4분기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부품은 모바일 및 서버 교체 주기를 고려한 수요 증가와 AI 시장 성장 등의 영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료품은 'K푸드' 인기로 인한 해외 수요 증가와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 전략<sup>43)</sup>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화학제품은 이차전지 소재가 전방산업 둔화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 반등<sup>44)</sup>으로 보험세<sup>45)</sup>를 나타내는 가운데 화장품이 수요가 확대되면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수출 전망 소폭 증가
- ▶ 전자부품 증가
- ▶ 음식료품 소폭 증가
- ▶ 화학제품 소폭 증가

제조업 주력산업 수출 전망 모니터링 결과<sup>1)</sup>

업종	주요 변동 요인	전망
전자부품	모바일 및 서버 교체 주기를 고려한 수요 증가와 AI 시장 성장	▲▲
음식료품	'K푸드' 인기로 인한 해외 수요 증가	▲
화학제품	화장품 수요 확대	▲

주: 1) 전분기대비 방향성을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 ▲, ◇, ▼, ▼▼는 각각 증가, 소폭 증가, 보합, 소폭 감소, 감소를 나타냄

43) 지역 내 식료품 제조회사는 미국에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할랄시장 공략에 나서는 등 해외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44) 2024년 4~5월 중 평균 리튬가격(RMB/kg)은 107.1위안으로 이는 올해 1월(86.5)에 비해 24.3% 높은 수준으로 반등하였으며 향후 시차를 두고 양극재 판매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45) 다만 이는 리튬 가격 반등에 따른 판가 상승에 기인한 것이며 본격적인 수요 회복은 2025년 이후로 예상된다.(언론보도)

지표로 보는 충북 경제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3월	4월	5월
제조업 생산 <sup>1)</sup>	0.5	-4.2	-6.8	-3.9	-8.7	3.3	-6.6	-11.0	-7.6	..
서비스업 생산 <sup>2)</sup>	5.8	1.0	6.1	0.4	0.4	-1.7	-1.1	-	-	-
비제조업 매출BSI <sup>3)</sup>	57	65	61	70	65	63	65	66	66	65
소매판매액지수 <sup>2)</sup>	-1.9	1.2	7.9	1.3	0.4	0.5	-0.9	-	-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sup>2)</sup>	-4.7	0.6	-1.8	2.6	3.3	-1.5	-2.0	-0.4	-10.6	..
제조업 설비투자실행BSI <sup>3)</sup>	82	93	91	95	92	94	97	101	102	101
건설업 업황BSI <sup>3)</sup>	65	54	41	58	64	52	44	48	55	46
수 출 <sup>4)</sup>	12.7	-14.1	-8.0	-17.0	-21.0	-8.9	-13.1	-20.2	-8.0	-5.2
취업자수 증가 <sup>5)6)</sup>	2.9	1.3	1.2	1.3	1.3	1.4	1.4	0.0	0.2	0.2
(비농림어업)	(2.4)	(0.8)	(1.6)	(0.5)	(0.2)	(0.8)	(1.6)	(0.0)	(0.2)	(0.1)
고 용 률 <sup>6)</sup>	64.9	65.4	63.4	66.5	66.2	65.6	64.0	65.3	67.2	67.2
소비자물가	5.7	3.6	4.8	3.3	2.9	3.3	3.0	3.0	2.7	2.5
주택매매가격 <sup>7)</sup>	-1.3	-1.2	-2.0	-0.4	0.3	0.8	-0.1	0.0	0.0	0.0
주택전세가격 <sup>7)</sup>	-1.2	-1.8	-2.2	-0.5	0.2	0.8	0.2	0.0	0.0	0.0
기업자금사정BSI <sup>3)</sup>	76	74	73	72	76	75	76	79	78	70

주 : 1) 원계열(2020=100) 기준 2) 불변지수(2020=100) 기준 3) 지수(기준치=100), 4) 명목금액(미 달러) 기준 5) 만명  
6) 분기 수치는 기간 중 월평균 7) 전기말월대비(단, 월 자료는 전월대비)

발행 한국은행 충북본부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45 홈페이지 www.bok.or.kr > 지역본부 > 충북본부

문의 043-220-0594(제조업 생산, 설비투자, 수출)  
043-220-0593(서비스업 생산, 민간소비, 건설투자)  
043-220-0591(고용, 소비자물가 및 주택가격)